

## 에드워즈 “NBA 우승 후 NFL에 도전할 것”



▲ 앤서니 에드워즈, 사진=fansided.com

에드워즈는 이번 시즌 미네소타의 서부 콘퍼런스 단독 선두(12승 4패)를 이끌고 있다. 16경기에서 평균 26.6점, 5.9 리바운드, 5.2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필드골 성공률이 46.6%에 달한다. 득점력은 매년 좋아지고 있고 수비력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조던과 비교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에드워즈의 성적은 해가 거듭될수록 좋아지고 있다.

이런 에드워즈가 최근 ESPN과의 인터뷰에서 “먼저 NBA에서 내 비즈니스(우승)를 처리한 후 NFL에 도전해보겠다.” 고 말했다. NBA 최초로

NFL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다음 시즌부터 최소 2억 590만 달러에 달하는 5년 맥시멈 계약 연장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미네소타는 그가 NFL에서 뛰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과거 보 잭슨이 메이저리그와 NFL에서 활약한 바 있다.

“너는 나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운동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체격이) 더 크다.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면 무적이 될 것이다.”

지난 28일 ‘마니아타임즈’에 따르면 앤서니 에드워즈(미네소타 팀버울브스)는 2020년 NBA 신인 드래프트에서 자신이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 의해 전체 1순위로 지명됐을 당시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밝혔다.

## 호날두가 변했다? ... “PK 아니다”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 사진=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사우디아라비아 아알 나스르)가 양심선언을 해 화제다.

호날두는 지난 27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페르세폴리스(이란)와의 2023-2024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E조 5차전 경기에서 전반 1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공을 잡으려다 상대 수비수와 충돌해 넘어졌다. 주심은 곧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그런데 호날두는 주심에게 페널티킥이 아니라고 했고 이에 주심은 VAR 확인 후 페널티킥을 취소했다.

‘다이버’로 비판 받기도 했던 호날두는 페널티박스 안에서의 액션이 크다. 페널티킥을 얻어내기 위해 과장된 동작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포기하는 ‘양심선언’을 해 주목을 끌고 있는

것이다.

페널티킥을 얻은 선수가 스스로 판정이 잘못됐다고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더구나 득점 욕심이 큰 호날두 같은 성격의 선수에 대해서는 더욱더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로 이적한 호날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재 리그에서 15골을 터뜨렸고, ACL에서도 3골을 넣었다.

팀 성적도 좋다. 이날 알 나스르는 페르세폴리스와 0-0으로 비겼다. 승점 1을 추가한 알 나스르는 조 1위를 확정하며 16강에 진출했다. 리그에서도 알 나스르는 2위에 올라 있다.

# 정순배 니트패션 Big Sale

40년 경력

니트 정장 맞춤 전문점

- ◆ 최고급 이태리 실(원사)로만 사용함
- ◆ 여성니트 정장맞춤 전문점
- ◆ 결혼, 예단, 파티복, 드레스

“니트 수선 해드립니다”

\*\*\*30대~50대 분들을 위한\*\*\*

캐주얼 스타일 니트도 맞추어 드립니다



T. 714.539.1450

8942 Garden Grove Blvd. #103  
Garden Grove, CA 92844